

〈특별기고〉 權仁浩(철학박사, 대전대 명예교수, 한국동양철학회 명예회장)

전통계승과 온고지신 및 민본적 정치철학의 실사구시적 실학정신(15)



3. 6쪽의 고려 말의 중국(명나라)에 사신 갔다가 압록강에서 역성혁명 소식을 듣고 중국으로 망명한 예의판서 김주(金澍, ?~?, 선산 김씨)와 7쪽의 여현의 '남산 서원 봉안제문'에서 “백이(伯夷, ?~?, 은복나라 말기의 성인, 고죽국孤竹國의 왕자로 목태씨墨胎氏, 이름은 윤允, 자는 공신公信)의 ‘정(淸)’과 유하해(柳下惠, ?~?, 전금展禽, 춘추시대 노魯나라의 大夫를 지냈다. 성은 전이고 자가 금, 유하는 식음의 이름이고 해는 시호. 인덕仁德과 조행操行으로 孔子의 칭찬을 받은 인물, 동생이 유명한 도적인 도척盜跖)의 ‘화(和)’는 도가 비록 다르기는 하나 / 유림儒林을 부지하여 세우기는 세대가 다를 뿐 공功은 한가지였네. 에서 여현이 임진왜란·정유재란과 정묘·병자호란을 겪고 나라에 충성(1636년 12월 83세의 노구老軀로 여러 군현郡縣에 통문을 보내 의병창의를 하게 하고 군량미를 모아 보냈다)을 다했지만 다음해인 1637년 2월 끝내 인조의 청태종에게 삼전도의 굴욕적인 항복 소식을 듣고 참지 못하여, 죽을 각오로 동해가의 입암산(立巖山)에 들어간 지 반년 후에 졸수하였다.”

여기에서 최근 8.15 광복절 76주년 대한민국 광복회 김원웅 회장(의열단 출신 부모의 장남으로 중국 중경重慶에서 1944년 3월 출생) 광복절 추사에서 친일과 정산문제와 대를 이어 친일 반민족 카르텔 문제 및 여(여불여민주당)·제1야당(국민의힘당) 내년 3월 대선 대통령후보들의 경선과정에서 총리·감사원장·장관·검찰총장·국회의원·도지사·판·검사 등 공직자 출신 후보자들의 사(사)가지(仁義禮智)와 신의(信)를 합한 오상(五常)이 없어진 자들에게 여현을 빙의(憑依)해서 고언(苦言)을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요?

4. 17쪽의 주17~19 유명종 교수(여현학연구회) 창립하고 여현의 [우주요괘점宇宙要括帖], [여경도설] 등을 비롯한 일련의 저작과 이론과 실천에서, 이른바 조선조 성리학 4대가(화담 서경덕, 남명 조식, 퇴계 이항, 율곡 이이) 중에서, 여현의 출처의리(향시, 소·대 문과에 모두 응시도 안함, 벼슬 전거 거부와 수많은 사환仕宦을 사작)와 ‘송조육현(宋朝六賢 : 주돈이周敦 , 정호程顥, 정이程 , 장재張載, 소옹邵雍, 주희朱熹)을 통섭하면서도, 정호(정백자程伯子), 장재, 소옹의 특징을 수용하며 강조하는 것은 화담이나 남명과의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고 평자는 생각한다.

그리고 퇴·율의 정주학적 이기론(理氣論)보다는, 여현은 리경기위(理經氣緯)론, 리체기용(理體氣用)론, 인심도심(人心道心)론, 도일원(道一元)론 등은, 후일 갈암(葛庵) 이현일(李玄逸, 1627~1704)이 퇴계의 입장에서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여현의 철학사상이 평자 또한 논자와 같은 시

각에서 보다 자주적, 주제적 독창적이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에 대한 논자의 의견은 앞선 논의에 찬동하면서도 ‘화합과 중용, 융섭의 철학’이라고 하는 이유와 다시 독자성을 주장한 근거는 무엇인가를 보다 상세하게 해명을 하신다면요?

5. 28~30쪽에서 여현의 ‘대장부(大丈夫)론’과 ‘문무일체(文武一體)론’에 대한 논자의 극찬을 아끼지 않는 데에 평자 또한 대부분 동의하면서도, 약 40여 년간 남명학을 공부해온 평자가 약간의 보충을 한다면, 남명은 [을묘사직소](단성현감사직소)에서 문정왕후(대비) 윤씨에 대한 ‘궁정의 일개 과부’나 명중에 대해 ‘왕위를 이은 일개 고아’로 칭하는 ‘파천황의 상소’, 유교 민본사상의 주요핵심인 맹자 혁명론적 사상을 주장한 “민암부민鼎賦” 그리고 ‘칼(경의경經義劍)을 찬 선비’로서 남명과 임진왜란 때 정인홍, 김면, 객제우를 비롯한 57명의 제자 의병장, 그리고 ‘서리망국론(胥吏亡國論)’과 ‘공물폐해론(貢物弊害論)’ 등은 훗날 실학자들로 이어져 대동법과 실학자들 성호 이익의 [장리론臧吏論]과 [무묘武廟]와 ‘무학(武學)설치 주장, 다산 정약용의 [향리론鄕吏論], [감사론監司論]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문무겸전(文武兼全)’과 ‘출장입상(出將入相)’의 인물로 중국의 북송시대 범중淹(范仲淹, 989~1051), 왕수인(王守仁, 1472~1528) 등과 고려의 감감찬(姜希顔, 948~1031), 조선조의 정언신(鄭彦信, 1527~1591), 권율(權慄, 1537~1599), 정문부(鄭文孚, 1565~ 1624) 등을 거론 보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한 논자의 의견은 어떠한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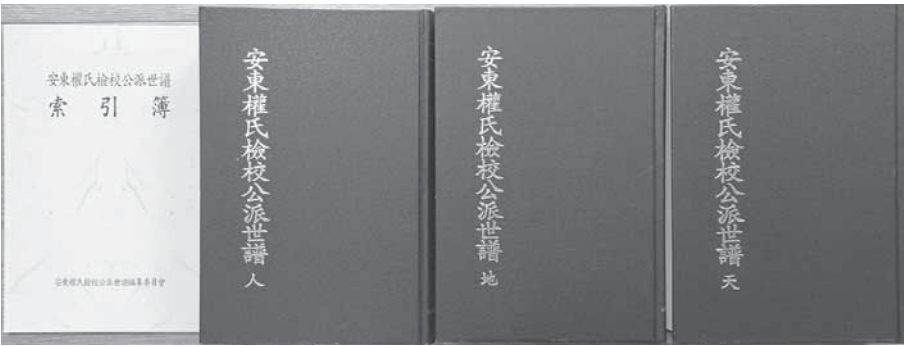
6. 평자의 마지막 질문으로, 논자의 간담명료하면서도 ‘촌철살인(寸鐵殺人)’이 아닌 ‘촌철활인(寸鐵活人)’의 현명한 답변을 바라는 질문은,

30쪽 IV 구미 인문학의 계승에서부터 32쪽 여현 철학의 인문학적 의의에 관하여, 조선조 ‘산림정치(山林政治)’ 호시인 내암 정인홍이 그 궁정적인 면을 제대로 계승한 여현 철학의 인문학적 의의라고 보며, 외척과 결탁하여 봉당정치(서인·노론) ‘반정’이 궁정 쿠데타적 ‘택군(擇君)’의 부정적인 면은 우암 송시열이고 세도정치와 삼정문란 끝내 일제에 관작과 명치일왕의 은사급을 받은 친일 매국노(이완용·노론의 마지막 영수領袖:당수黨首)들의 모습이 아닌가 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는데, 백범 김구의 어록(부국강병보다 문화국가가 되기를 희망)에 절실하게 동의한다.

끝으로 영남에서 조선후기에 일어났던 시시비비 논인의 병호(屏虎:(호병 ; 학봉 김성일·호계서원과 서에 유성룡·병천서원)시비, 청화(淸樞: 동강 김우흥·청천서원, 한강 정구·회연서원)시비, 한려(寒旅 ; 한강 정구와 여현 장현광) 시비에 대해서도 앞서 질문한 ‘산림정치’와 ‘문묘당사’ 문제와 함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호에 계속)

검교공파 신축세보 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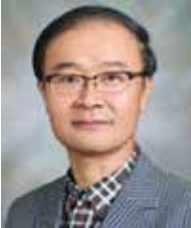
검교공檢校公 휘諱 植偶은 안동권씨 15 파 중 검교공파의 파조派祖이며, 후손들은 1984년 봄 상주시 공검면 율곡리 송덕산에 파조 단소를 설립하여 매년 9월 중정(中丁)에 제향을 올리고 있다.

검교공파종회(회장 권무탁)에서는 2018년 파조 추향 후 정기총회에서 의결한 파세보(派世譜) 발간을 위하여 파보편찬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3년 동안 수단修纂 교정, 편집을 수차례 실시하여 2021년 9월 파보 신축보(辛丑譜, 2021년)를 1질 3권(天·地·人)으로 간행하였다.

금번에 간행한 신축보는 그간 갑인보

현조(賢祖) 문집 봉람(奉覽)<6>

《한수재집(寒水齋集)》



권갑현 편집위원장

《한수재집(寒水齋集)》은 수암(遂庵) 권상하(權尚夏, 1641~1721) 공의 시문집으로 모두 35권 14책이며 연보와 부록이 추가되어 있다.

수암공은 시조 태사공 27세로 자는 치도(致道)이고 호가 한수재 또는 수암이다. 공은 스승인 우암(尤菴)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이 1659년 자의대비(慈懿大妃)의 복제(服制) 문제로 관작을 삭탈당하고 1675년 덕원(德源)으로 유배되는 것을 보고 벼슬길을 포기하고 청풍(淸風)에 은거하였다.

회니시비(懷泥是非)로 인하여 명재(明齋) 윤증(尹拯, 1629~1714)이 우암 문하를 떠나고, 숙종 15년(1689) 기사환국으로 우암이 사사(賜死)되자 공은 스승의 유명(遺命)을 받아 명실상부한 우암 문하의 적전(嫡傳)이 되었다. 이후 숙종 20년(1694) 갑술환국(甲戌換局) 등 서인(西人)과 남인(南人) 간의 당쟁이 치열하였으나 향촌에서 학문에만 몰두하였다.

공은 스승 우암의 유명에 따라 화양동(華陽洞)에 만동묘(萬東廟)를 세워 명(明)나라 신종(神宗)과 의종(毅宗)을 제사 지냈다. 숙종 41년(1715) 《가례원류(家禮源流)》를 둘러싸고 벌어진 시비에서 장암(丈巖) 정호(鄭濤, 1648~1736)와 함께 이 책이 시남(士南) 유계(俞梁, 1607~1664)의 저작임을 주장하고 <가례원류서(家禮源流序)》를 저술하여 윤증을 공격하였다. 이를 계기로 숙종의 병신년(1716, 숙종42) 처분을 받게 되었다.

금번하는 봉당기 속에서도 성리학을 꾸준히 연구하여 율곡(栗谷) 이이(李珣, 1536~1584)와 우암으로 이어지는 기호학파(畿湖學派)의 학통을 계승하였고, 공의 문인들이 전개한 호락논변(湖洛論辨)을 학과적 성격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이밖에 17세기 이후 성리학이 예학에 의하여 사회 규범으로 굳어지는 학문 풍토 속에서 인물성동이론(人物性同異論)을 제기하여 예학적(禮學的) 학문 이론을 활성화하고 심화시키기도 하였다.

공의 문하에서 배출된 학자로는 윤봉구(尹鳳九), 한원진(韓元震), 이간(李柬), 채지홍(蔡之洪), 이이근(李頤根), 현상벽(玄尙璧), 최경후(崔敬厚), 성만장(成晩徵) 등 소위 강문팔학사(江門八學士)가 있다.

공의 시문(詩文)은 관련 연구자에 의하면 공의 손자인 권정성(權定性, 1677~1751)이 모으고, 이를 수암의 수제자인 병계(屏溪) 윤봉구(尹鳳九, 1683~1767)와 남당(南塘) 한원진(韓元震, 1682~1751)이 산정(刪定)하고 편집하여 정리하였으며, 이렇게 정리된 유문을 1757년경부터는 간행할 계획을 세웠는데 이때 일을 주관한 사람은 권정성의 아들 권진응(權震應, 1711~1775)으로 보고 있다.

간행에 대한 기록은 연보의 끝부분에 있는 ‘송정 삼신사하 경상간영 개간(崇禎三辛巳夏慶尙監營開刊)’이라는 간기(刊記)와 서문에서 알 수 있다. 권진응은 1761년에 대구(大邱)에 감사로 나가는 황인검(黃仁儉, 1711~1765)에게 간행하게 했는데, 황인검은 공의 맏아들 권옥(權煜, 1658~1717)의 둘째 사위 황재(黃粹)의 아들로 이조판서를 역임하였으며, 남당 한원진의 제자이다.



민족문화추진회[현 한국고전번역원]에서는 1991년에 공의 시문 34권 15책은 물론 연보와 부록, 그리고 탈초(脫草)되지 않은 상태로 전해오던 《황강문답(黃江問答)》을 탈초하여 편집하고 이 모두에 대해 구두점을 찍고 국역하고 책 뒷부분에 영인 원본도 붙여 전집 6권의 [국역 한수재집]으로 출판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는 34권 15책의 원본 이미지를 열람할 수 있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홈페이지에서는 상기 민족문화추진회에서 국역 출판한 전체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한수재집》에서 편자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편지는 성리학(性理學)에 관한 주요한 논문을 비롯하여 경전의 해석 및 예제(禮制)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에 답변한 것, 당시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한 것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중에도 예제(禮制), 주로 상례(喪禮)와 제례(祭禮) 관련 질문에 답한 것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예론(禮論)을 무기로 심하게 정쟁(政爭)했던 당시의 상황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잡저(雜著)에 실려있는 태극도(太極圖), 사칠호발(四七互發), 성(性)에 대한 변설(辨說) 등은 수암공의 성리학에 대한 주요 논문들이다.

《한수재집》의 첫머리에 나오는 다음 시는 수암공이 18세 때인 1658년(효종9)에 영천(榮川, 지금의 榮州) 군수인 조부 권성원(權聖源, 1602~1662)을 따라와 영주에 있으면서 지은 것이다.

제민루(濟民樓)에서 1658년

嶺南形勝濟民樓(영남형승제민루)
영남에서 경치 빼어난 이곳 제민루에
千古騷人幾此遊(천고소인기차유)
천고의 시인 목객 몇몇이나 노닐었나
十里空湖開玉鏡(십리공호개옥경)
십리 멀리 호수가 옥거울처럼 열렸고
數峯長笛送清秋(수성장笛送淸秋)
두세 가락 긴 잣대 맑은 가을 보내오네
黃花白酒天涯客(황화백주천애객)
낯선 곳 나그네는 황화 백주를 즐기고
紅樹青山郭外洲(홍수청산곽외주)
성 밖은 모래톱 붉은 나무 푸른 산이네
角龍官門人已散(각파관문인이산)
나팔 올린 관가 문에 사람들은 흩어지고
月輪移在鶴峯頭(월륜이재학봉두)
둥근달이 옮겨와 학가산 머리에 두둥실

제민루(濟民樓)는 지금의 경북 영주시(榮州市) 구산(龜山) 남쪽에 있던 누각으로 1433년(세종15)에 군수 반저(潘渚)가 세운 것이다.

(甲寅譜, 1734년)에서 기묘보(己卯譜, 1999년)까지 6차에 걸쳐 간행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누락되고 변동된 사항이 누적되어 파보를 간행하는데 후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동권씨 종보에 2차례 광고하고 출생, 혼인, 사망 등 4천여명의 변동된 내용을 새로 수록하여 후손들

이 자기 조상을 좀 더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남녀 구분하여 색인부(索引簿)를 부록으로 편집하였다.

검교공파종회에서 새로 간행된 파보를 안동권씨 대중회와 각 지역총친회, 국립중앙도서관, 한국족보박물관, 한국성씨총연합회, 성균관, 박약회 본부, 대학교서

관 등 40여 기관과 단체에 비치하여 족친들 간의 관계를 알고 지내도록 홍보하고 있다.

권오철 검교공파종회 총무
전화번호 010-3247-9716

안동권씨 종보 구독 안내

안동권씨 종보는 47년 전통을 자랑하는 안동권문의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안동권씨 종보는 100만 족친 여러분의 소통매체이자 대변지입니다. 안동권씨 종보는 안동권문의 소통공간으로서 모든 족친에게 열려 있습니다. 본지는 100만 족친과 함께 안동권문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회에서는 종보 활성화 방안으로 족친님의 참여 의식을 높이기 위해 구독자 1명 추천에 <10.000원>의 사례금을 즉시 지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구독신청 연락처

▶ 전화번호 : 02-2695-2483~4 ▶ FAX: 02-2695-2485 ▶ E-mail: ankwon2695@naver.com, andongkwonmun@daum.net

◆ 입금 계좌 : 033237-04-006941(국민), 예금주 : 안동권씨 대중회

안동권씨 대중회 회장 권해옥